

『日本における弥生時代農耕の開始と展開』討論要旨文

趙 現 鐘
國立光州博物館

수렵과 채집의 단계에서 식물재배로의 전환이 인류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세계 각지에서는 소위 농경개시 및 전개과정에 관한 문제가 과거는 물론 현재도 새로운 관심을 유발하는 연구주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농경의 문제는 재배작물, 그리고 재배경지와 농경도구, 나아가 사람들의 사고방식 등이 반영된 복합문화체계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한편, 우리나라의 농경관련 연구는 자료의 증가와 더불어, 이전 단계에 비해 질적인 진전이 이루어 졌다고 평가된다. 전략적 조사방법의 적용결과 재배작물 및 경작유구의 검출이 증가되었고, 특히 목제 농경구는 농사체계나 방식을 복원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자료가 갖는 동정의 타당성과 오염 가능성이며, 관련 유구와 유물의 해석에 있어서도 정치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수전 경작지의 조사와 농경연구의 권위자인 山崎純男 선생님의 발표문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선생님은 발표문을 통해서 한반도와 서일본지역의 토기유형에 대한 병행관계를 살펴보고, 지역간 시대별 재배식물의 내용조성 및 관련 경작유구 등을 근거로 양 지역의 농경 개시 및 전개과정을 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배작물의 동정 및 해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고학 자료취급에 대한 주의를 환기함과 아울러 선생이 직접 실시한 壓痕資料를 제시하고 있다. 실제, 山崎純男 선생은 압흔에 대해서도 이미 전문적인 연구성과를 낸 바 있고¹⁾,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에도 자료수집을 지속하는 등, 이번 발표의 신뢰도는 매우 높다고 하겠다.

여기에서는 토론의 형식으로 선생님의 견해를 청취하고자 몇 가지 질의를 준비하였다.

1. 서일본지역과의 병행관계에 각 시기별로 대응하는 弥生개시기의 突帶紋土器와 舟漆壺形土器, 夜白 I 式단계의 休岩里形 호형토기, 板付 IIa 式단계의 松菊里形土器, 板付 IIb 式 단계의 圓形粘土帶土器는 한반도에서 시기별로 지속적인 전파가 이루어졌다는 구체적 증거이다. 이러한 유물상과 더불어 수도농경이 한반도에서 전파된 것이 확실하다면 이와 관련된 농경기

1) 山崎純男, 2007, 「九州におる壓痕資料と繩文農耕」『列島初期農耕史の新觀點』, 日本考古學協會.

술이나 도구, 나아가 수전조성 및 경영방식 등의 유입과 관련된 단계설정의 가능성은 어떠한지?

2. 압흔자료를 통해서 신석기시대의 한국은 조, 기장, 차조기속을 중심으로 한 잡곡농경이, 그리고 繩文時代 일본은 콩류(대두속, 팥속)와 차조기속이라는 작물조성상의 차이점을 들어 양 지역의 독자성으로 적시하고, 弥生 개시기에 조, 기장이 벼와 함께 등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대체로 한반도의 초기농경은 중국 동북지방의 조와 기장을 중심으로 한 밭농사의 유입에 이어서 청동기시대에 벼가 부가되는 조성형태를 나타낸다. 앞으로의 조사를 기다려야 하겠지만, 지금까지의 결과는 한일간 재배식물의 전과는 비로소 靑銅器時代 즉 弥生開始期에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혹시 繩文期 한반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곡물자료는 확인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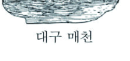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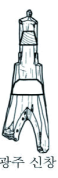





3. 선생께서는 西日本の 수전조사 사례를 통해서 일본의 수도농경기술이 도입기 당초부터 완성된 기술체계로 유입되었다고 보고, 給水型(板付, 野多目)과 排水型(菜田)으로 구분한 바 있다.²⁾ 이밖에도 都出比呂志는 면적에 따라 小區劃, 大區劃³⁾으로, 田崎博之는 5유형으로⁴⁾, 그리고 지형형태로서 계단식, 경영 형태로서 濕田, 乾田(또는 半乾田)가 같은 다양한 구분 및 연구성과가 있다. 한편, 福岡平野를 중심으로 수도농경 도입기의 水利構造를 분석하고 水稻作 초기단계에서부터 지형조건에 대응한 다양한 灌溉技術이 존재한 것으로 파악한 吉留秀敏의 글은⁵⁾ 앞서 선생의 글과 내용적으로 부합되고 있다. 일본 수도작 재배기술이 한반도에서 유입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수전조성이나 형태, 경영방식은 그동안 한국에서 확인된 수전양상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벼재배를 위한 경지로서 수전은 도작발상지인 中國 楊子江流域에 그 기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전개과정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2) 山崎純男, 1987, 「北部九州における初期水田」『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第32集, 九州大學校.

3) 都出比呂志, 1987, 『日本農耕社會の形成過程』岩波書店.

4) 田崎博之, 1998, 「福岡地域における弥生時代の土地環境の利用と開發」『福岡平野の古環境と遺蹟立地』九州大學出版會.

5) 吉留秀敏, 2004, 「水稻農耕導入期の灌溉技術-初期水田經營をめぐって-」『福岡大學考古學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 小田富士雄先生退職記念事業會.

	괭이	고무래·흙반이	삽	따비	절구공이	도끼·자귀
조기						
전기	 울산 교동  안동 저전  대구 서변	 광주 동립  대구 매천  대구 매천	 나주 황산		 대구 매천  안동 저전	 광주 동립  대구 서변  안동 저전  경주 조양
	 대구 매천	 논산 마천?  논산 마천?  광주 노대				
중기						
후기		 고창 황산		 전 매천 농경문명동기		
초기철기	 광주 신창  광주 신창  평북 용연			 광주 신창  日本 土生	 광주 신창	
	 광주 신창					 광주 신창  광주 신창

參考圖版, 한국 청동기시대 목제농구의 전개양상

(趙現鐘, 2014, 「목기의 종류와 특징」 『청동기시대의 고고학5 道具論』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 12, 서경문화사에서 일부조정.